

[공모펀드 변경 안내]

가. 대상 펀드 : 교보악사 공모주 하이일드플러스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나. 변경 시행일 : 2023년 6월 12일

다. 변경 내용 :

- 조세특례제한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 연금계좌 및 퇴직연금제도 과세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전	정정후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p>① <생략></p> <p>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이를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p> <p>③ <생략></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이를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u>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u>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p> <p>③ <현행과 동일></p>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따른 <u>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u> 으로서 국내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따른 <u>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u> 으로서 국내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p>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이하 “채권”이라 한다)</p> <p>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 (이하 “비우량채권”이라 하며, 이를 적용할 경우 해당 채권이 비우량채권인지는 해당 채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비우량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 등에 편입된 후 비우량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채권을 비우량채권으로 본다)</p> <p>2.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이하 “주식”이라 한다)</p> <p>2-1.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한 코넥스 상장주식(이하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p> <p>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p>	<p>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전자증권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이하 “채권”이라 한다)</p> <p>1-2. 신용등급(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이 BBB+ 이하[전자증권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이라 한다)</p> <p>2.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한 코넥스 상장주식 (이하 “주식”이라 한다)</p> <p>2-1. <2호로 이동></p> <p>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p>
--	---	---

	<p>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p> <p>4~11. <이하 생략></p>	<p>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p> <p>4~11. <이하 현행과 동일></p>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p>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p> <p>1.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u>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하인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하인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u></p>	<p>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p> <p>1.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p>
제 18 조의 2(고위험고수익채권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	<p><신설></p>	<p>①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u>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일 것</u></p> <p>2. <u>국내자산에만 투자할 것</u></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채권의 신용등급은 해당 채권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고위험고수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후 고위험고수익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그 날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한다.</p> <p>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평균보유비율은 고위험고수익채권과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평가액에서 차지</p>

		<p>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하며, 매 분기 종료일에 산정한다.</p> <p>④이 투자신탁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날의 일일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본다.</p> <p>1. 고위험고수익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45% 미만인 경우: 45%</p> <p>2. 제1호의 채권을 포함한 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60%</p> <p>⑤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제 1 항 제 1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기산하여 3 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또는 만기일부터 역산하여 3 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분기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일일보유비율을 합산하여 그 나머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해당 분기의 평균보유비율로 한다.</p>
제 19 조(운용 및 투자제한)	<p>1. <생략></p> <p>2. <생략></p> <p>가. <생략></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p>	<p>1. <현행과 동일></p> <p>2. <현행과 동일></p> <p>가. <현행과 동일></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p>

	<p>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생략> 3.~8. <이하 생략></p>	<p>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현행과 동일> 3.~8. <이하 현행과 동일></p>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제1호의 단서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3월간 2.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3월간 3. 이 투자신탁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하인 채권과 코넥스상장주식의 일일보유비율 또는 이를 포함한 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45 또는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이를 각각 100분의 45 또는 100분의 60으로 본다</p>	<p>③ <삭제></p>
제 30 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u>대차대조표상</u>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이하 생략></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u>재무상태표상</u>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이하 현행과 동일></p>

제 32 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p>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u>대차대조표</u></p> <p><이하 생략></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u>재무상태표</u></p> <p><이하 생략></p>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p>① <생략></p> <p>1.~2. <생략></p> <p>3.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4.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① <현행과 동일></p> <p>1.~2. <현행과 동일></p> <p>3.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u>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4.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하고 1년(<u>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p>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1.<생략></p> <p>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p> <p><이하 생략></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1.<현행과 동일></p> <p>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u>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u>다)</p> <p><이하 현행과 동일></p>

[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구분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p>1.~8. <생략></p> <p>9.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매각이 용이하지 못하여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p> <p>10. <생략></p> <p>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p>	<p>1.~8. <현행과 동일></p> <p>9.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매각이 용이하지 못하여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p> <p>10. <현행과 동일></p> <p>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u>시행령</u></p>

	<p>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여 임의해지되거나 다른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p><신설></p> <p><신설></p>	<p>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여 임의해지되거나 다른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p>12.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등에 따른 <u>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u>으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1년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하 <u>이일드펀드 가입금액 3천만원</u>까지만 분리과세 되고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미적용되오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분리과세 적용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13. 이 투자신탁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45%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하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기 투자비율 미 충족시에는 분리과세 및 공모주 청약시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p>
<p>[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p>	<p>•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과 KONEX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투자비율을 45% 이상, 채권의 평균투자비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p>	<p>•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따른 <u>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u>으로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45%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p>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작성기준일로 갱신
[요약정보]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매각이 용이하지 못하여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매각이 용이하지 못하여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등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1년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하이일드펀드 가입금액 3천만원까지만 분리과세 되고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미적용 되오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분리과세 적용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주요투자위험	※하이일드투자위험: 하이일드 증권 및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지는 <u>비우량채권등</u> 은 ~<이하 생략>	※하이일드투자위험: 하이일드 증권 및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지는 <u>고위험고수익채권등</u> 은 ~<이하 현행과 동일>
[요약정보] 과세	<신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작성기준일로 갱신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서 국내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서 국내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① 채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① 채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

<p>가. 투자대상</p>	<p>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 (이하 "비우량채권"이라 하며, 이를 적용할 경우 해당 채권이 비우량채권인지는 해당 채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비우량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 등에 편입된 후 비우량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채권을 비우량채권으로 본다)</p> <p>-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하인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하인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p> <p>②~③ <생략></p> <p>④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p> <p>⑤~⑭ <이하 생략></p> <p>※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의 단서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3월간 -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3월간 	<p>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전자증권법 제 59 조에 따른 단기사채등</p> <p>- 신용등급(법 제 335 조의 3 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이 BBB+ 이하[전자증권법 제 2 조제 1 호 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 59 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이라 한다)</p> <p>②~③ <현행과 동일></p> <p>④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p> <p>⑤~⑭ <이하 현행과 동일></p> <p><삭제></p>
----------------	---	--

	<p>- 이 투자신탁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하인 채권과 코넥스상장주식의 일일보유비율 또는 이를 포함한 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45 또는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이를 각각 100분의 45 또는 100분의 60으로 본다</p> <p><신설></p>	<p>※ 고위험고수익채권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p> <p>①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일 것</p> <p>2. 국내자산에만 투자할 것</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채권의 신용등급은 해당 채권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고위험고수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후 고위험고수익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그 날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한다.</p> <p>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평균보유비율은 고위험고수익채권과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하며, 매 분기 종료일에 산정한다.</p> <p>④이 투자신탁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날의 일일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본다.</p> <p>1. 고위험고수익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45% 미만인 경우: 45%</p> <p>2. 제1호의 채권을 포함한 채권의 일일보</p>
--	--	---

	<p>주1~주2) <생략> <신설></p> <p><신설></p>	<p>유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60%</p> <p>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또는 만기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분기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일일보유비율을 합산하여 그 나머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해당 분기의 평균보유비율로 한다.</p> <p>주 1)~주 2) <현행과 동일></p> <p>주 3)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p> <p>주4)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p>
<p>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p> <p>나. 투자제한</p>	<p><생략> - 동일종목 투자</p> <p>① <생략></p> <p>②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 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p>	<p><현행과 동일 > - 동일종목 투자</p> <p>① <현행과 동일 ></p> <p>②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 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p>

	<p>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u></p> <p><이하 생략></p>	<p>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이하 현행과 동일></p>
<p>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p> <p>가. 투자전략</p>	<p>-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서 국내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주식(공모주 위주)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투자하여 자본 이득과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p> <p>- 채권에의 투자는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하인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p> <p><신설></p> <p><이하 생략></p>	<p>-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서 국내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주식(공모주 위주)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투자하여 자본 이득과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p> <p>- <u>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45%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u></p> <p>- <u>‘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 부여됩니다. 다만, 이는 관련 규정 및 정책변경 등으로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u></p> <p><이하 현행과 동일></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p> <p>나. 특수위험</p>	<p>※하이일드투자위험: 하이일드 증권 및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지는 <u>비우량채권</u>등은 ~<이하 생략></p>	<p>※하이일드투자위험: 하이일드 증권 및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지는 <u>고위험고수익채권</u>등은 ~<이하 현행과 동일></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p> <p>다. 기타위험</p>	<p>※집합투자지구 해지의 위험 및 임의 전환의 위험</p> <p>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 되거나 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되거나, 당사 운용중인 다른 펀드로 전환, 합병 또는 모펀드 이전 등의 방법으로 소규모 투자신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p> <p><이하 생략> <신설></p>	<p>※집합투자지구 해지의 위험 및 임의 전환의 위험</p> <p>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이 되거나 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되거나, 당사 운용중인 다른 펀드로 전환, 합병 또는 모펀드 이전 등의 방법으로 소규모 투자신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p> <p><이하 현행과 동일>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 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p>	<p>-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u>대차대조표상</u>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 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 좌 단위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p>	<p>-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u>재무상태표상</u>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 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 좌 단위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p>
<p>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p> <p>(3)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p>	<p><u>[별첨 1] 정정 전 참조</u></p>	<p><u>[별첨 1] 정정 후 참조</u></p>
<p>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p>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p>	<p><u>[별첨 2] 정정 전 참조</u></p>	<p><u>[별첨 2] 정정 후 참조</u></p>

에 대한 과세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별첨 3] 정정 전 참조	[별첨 3] 정정 후 참조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 및 절차	<p>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p><생략></p> <p>-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② <생략></p>	<p>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p><현행과 동일></p> <p>-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② <현행과 동일></p>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p><생략></p> <p>-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p> <p><생략></p> <p>-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p> <p>-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p>	<p><생략></p> <p>-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p> <p><현행과 동일></p> <p>-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p> <p>-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p>

	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생략>	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현행과 동일>
--	-----------------------------------	---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정정전	정정후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과 KONEX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투자비율을 45% 이상, 채권의 평균투자비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 <u>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u>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작성기준일로 갱신
[요약정보] 투자자 유의사항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매각이 용이하지 못하여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신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매각이 용이하지 못하여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u>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1년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하이일드펀드 가입금액 3천만원까지만 분리과세 되고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미적용되오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분리과세 적용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u>
[요약정보] 주요투자위험	※하이일드투자위험: 하이일드 증권 및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지는 <u>비우량채권</u> 등은 ~<이하 생략>	※하이일드투자위험: 하이일드 증권 및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지는 <u>고위험고수익채권</u> 등은 ~<이하 현행과 동일>

[요약정보] 과세	<신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 세
--------------	------	--------------------------

[별첨1]

(정정 전)

(3)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

※ 분리과세에 대한 세제혜택은 2015.12.31까지 가입한 투자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후에 가입하신 투자자는 적용대상이 아니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내용
가입자격	가입제한 없음
가입기한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
계약기간	1년 이상 ~ 3년 이하 펀드 계약 필요 *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미적용
가입금액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하이일드펀드 가입금액 5천만원까지만 분리과세
세제혜택	펀드 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세율(15.4%)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율(6.6~41.8%) 미적용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환매시 분리과세 적용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1.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2.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거주자 : 가. 천재지변 / 나. 가입자의 퇴직 /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선고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천재지변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취급기간에 제출

(정정 후)

(3)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

구분	주요 내용
가입 자격	가입제한 없음 (단, 세제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
가입 기간	2023.06.12부터 2024.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
계약 기간	1년 이상 *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미적용
가입 금액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하이일드펀드 가입금액 3천만원까지만 분리과세
세제 혜택	펀드 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세율(15.4%)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감면세액 추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에 따라 추정함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해약 또는 환매시 분리과세 적용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1.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 질병의 발생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취급기간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투자신탁등의 결산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기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별첨 2]
(정정 전)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p>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p> <p>-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p> <p>-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p> <p>[2017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p> <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p> <p>※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p> <p>-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p> <p>-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p> <p>-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p>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 50 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후)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 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p>[세액공제]</p> <p>-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p>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p>연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p> <p>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선택가능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p>
일반해지시 과세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p>- 천재지변</p> <p>-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p> <p>-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p> <p>•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p> <p>-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p> <p>-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p> <p>-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p>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나이별로 5.5~3.3% 원천징수하고, 1,200만원 이상시 종합과세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3]

(정정 전)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700 만원 한도까지 12% 세액공제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정정 후)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